

# 남성 연소노인의 은퇴 후 적응과정과 노년기 조망에 대한 연구\*

이 가 옥

(성공회대학교)

이 지 영

(성공회대학교)

### [요 약]

은퇴 후 연소노인들이 어떻게 노인이 되어 가고 있으며, 앞으로의 노년기는 어떻게 조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0명의 연소노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은퇴 후에도 연소노인들은 계속적으로 일을 하기를 원하였지만, 사회적으로 이들의 일에 대한 지향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 글은 일을 중심으로 그들의 기대를 낮추는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앞으로의 노년기를 어떻게 조망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연구 결과, 연소노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야심 달성에 실패하면서, 그때마다 기대를 낮추도록 요구받고 있었다. 외면적으로 이들의 포부는 점점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사회적 배제의 과정은 단순히 이들에게 일에 대한 포부뿐만 아니라,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까지 빼앗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짧어지려는' 개인과 '조로(早老)시키려는' 사회 사이의 커다란 괴리는 연소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있었다.

주제어: 남성, 연소노인, 은퇴, 적응과정

## 1. 서 론

우리에게 인간수명 100세의 시대는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따라 노년기는 점차 길어지고 있다. 평균수명의 연장뿐만 아니라, 조기퇴직의 급격한 증가 역시 노년기 삶의 양식과 형태에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일의 기간을 축소시키고 은퇴기간을 연장하여 결과적으로 노년기를 증가시

\*이 연구는 2004년도 유한킴벌리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키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sup>1)</sup>

연장된 노년기로 인하여, 이제 노인집단은 건강한 60세의 젊은 노인부터 거동하기 어려운 90세 이상의 노인까지 30년 이상 연령 차이가 나는, 단일한 집단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노인 집단내의 변화로 기존의 노년학은 노인집단내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비판과 함께,<sup>2)</sup> 노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토대로 '신노년학(new gerontology)'이라는 새로운 시도가 시작되었다(최혜경·공유경 역, 2002). 여기서 노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의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 의미가 부여되어야 하는 새로운 생애주기임을 강조하였다. '행복한 장수', '그레이 파워(grey power)', '제3의 연령' 등 매우 희망적인 노년의 이미지가 그것이다.

'신노년학'은 기존의 병약하고 무력한 부정적 노인상에서 탈피하여, 건강하고 독립적인 긍정적 노인상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 노인상이 앞으로 길어질 노년기를 살아가야 할 개인에게 삶의 희망을 던져준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노년학'이 보여주는 노년에 대한 희망적인 이미지는 독립과 생산성을 강조하는 서구적 가치관에 근간을 둔 것으로, 과연 우리의 젊은 노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사실상 미지수이다. 서구의 경우, 우리와 사회적·경제적·문화적으로 매우 다르다는 점은 감안한다면,<sup>3)</sup>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희망적 이미지의 성급한 적용에 앞서, 현재 노년기를 살아가고 있는 혹은 노년기로 들어서고 있는 젊은 노인들의 삶의 모습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sup>4)</sup>

우리나라의 노년학 연구들을 살펴보면, 아직은 노인집단 내 세대별 연구로 세분화되지는 않은 상태이다.<sup>5)</sup> 정책적 시급성을 이유로 주로 노쇠하고 병약한 '후기(後期) 노인층'에 해당되는 연구가 주로

- 1)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정년은 55세 미만인데 비해, 평균수명은 향후 계속 늘어 2022년에는 79세가 될 전망이어서 퇴직 후의 노후생활 기간이 24년 이상 될 전망이다.
- 2) 실제로 최근에는 그동안 기존의 노화 노년학 전문가들은 현대 사회에서의 노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주는 만큼이나 노인문제의 심화에 일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에 따라 노년학을 다루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이러한 비판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시각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다(김동일, 2002: 13). 그동안 노년학의 발달과정에서 학자들은 노인들이 병약하고 무력하므로, 양로원 같은 노인보호시설의 확충과 제반 정책 마련을 통해 이들을 위한 지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인이 그렇게 무력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연구결과로 제시되면서 노년학 연구의 초점 자체에 의문을 갖게 된 것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최근 노년학은 노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토대로 '신노년학(new gerontology)'이라는 노인연구의 새로운 시도가 시작되었다(최혜경·권유경 역, 2002).
- 3) 예를 들어 서구의 연구들에서 대부분 은퇴 후를 새로운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는 이를 위기로 인식하는 연구결과가 많았다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 4) 최성재·장인협(2002: 49)은 전통적으로 60세를 노령에 이른 것으로 축하하고 있고, 둘째, 현재 60세 이상의 사람들 가운데 60세를 노령의 시작연령으로 보는 사람이 제일 많으며, 셋째, 퇴직정년이 55-60세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 넷째, 국민연금법상 정상 연금수급 연령을 60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60-69세를 연소노인, 70-75세를 중고령노인, 75-84세를 고령노인, 85세 이상을 초고령노인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성재·장인협(2002: 49)에 따라, 연구 대상인 젊은 노인은 60-69세의 '연소노인'으로 하고자 한다.
- 5) 노년기를 세분화한 연구는 아니지만, 중년에서 노년 전기까지의 각각의 생애특성을 살펴본 대표적인 연구로 레빈슨의 '인생계절론'을 들 수 있다. 레빈슨은 60세에서 65세를 노년기로 진입하는 '성인 후기'라고 지칭하고, 이 시기를 노년기로의 전환기 특성을 갖는다고 하면서, 이 시기에 젊음과 늙음의 분열을 극복하고 적절하게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성인 후기의 중요한 발달과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강한 노인이 많은 '전기(前期) 노인층'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그나마 연소노인층에 해당되는 연구는 주로 은퇴와 관련된 요인 연구로, 노년기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은퇴라는 분절적 사건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다. 은퇴 이후 삶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은퇴 이후의 적응과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주로 개인의 건강수준, 경제상태, 학력과 같은 사회 경제적 요인들이나, 은퇴시기, 은퇴의 자발성·비자발성 여부, 개인의 성격적인 요인들과 관련지어 연구되어 왔다. 연구방법은 대부분 양적방법으로,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고려는 배제된 채 개인적 요인이 주로 연구되어 왔으며, 은퇴 이후 노년기로의 적응의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기존 연구로는 은퇴 이후 노년기와의 연장선 속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고리를 찾기 어렵다.<sup>6)</sup> 노인들의 삶과 생애과정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하는 노년학 연구에서 노인들의 삶의 경험에 대한 내재적 접근이 극히 부족했고, 노인을 대상화해 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노인들 스스로 노화과정 및 노년기 삶에 대해 어떤 해석과 의의를 부여하는가를 탐색하는 작업이 요구된다(한경혜, 2004: 22). 따라서 이들의 삶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은퇴라는 사건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기존 연구의 틀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고려와 함께, 은퇴 후가 노년기의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sup>7)</sup>

연소노인의 현재와 미래의 노년기를 이어주는 연구가 필요한 까닭은, 이 시기는 개인의 삶의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로 이 시기는 개인의 삶을 펼쳐놓았을 때 노년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말하자면 노년으로의 전환기라고 할 수 있다. 노년기로의 진입 시의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의 노년기를 인식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현재와 미래의 노년기를 이어주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로, 연소노인의 삶의 모습은 가까운 미래에 노인이 될 세대의 모델이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연소노인의 욕구 파악은 가까운 미래에 노인이 될 중년 세대의 욕구를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즉 개인적·사회적 차원의 복지를 위한 효율적인 전략을 구성하기 위한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도, 은퇴 이후 노년기와의 연계 과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김애순 역, 2003: 71).

- 6)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양적연구방법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양적 방법을 활용하는 연구들은 경험적 관찰과 논리적 추론을 통한 보다 객관화된 지식 산출, 예컨대 사회복지학의 과학적 지식 기반 축적과 확대에 매우 유용한 연구들이다. 그러나 양적연구의 지나친 편중은 현상의 본질보다는 일반화된 표피적 현상에 대한 이해에 보다 많이 집중하게 함으로써 맥락과 개별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사회복지 실천의 특성과 다소 거리를 갖는 결과를 양산하고 있다(강철희·김미옥, 2003: 70).
- 7) 사회문화적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로, 사회복지학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관심에 기초한 학문이기 때문에, 즉 가치의 변화와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사회복지학 이론 구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식체계에 대한 끊임없는 재점검과 강화 및 증대를 요구한다. 즉 클라이언트 특성의 다양화와 복잡화, 새로운 사회문제의 출현, 가치와 이념 변화 등의 사회변화에 대한 민감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면에서 사회적 맥락에 대한 관심과 함께 사회적 실체와 현상 및 과정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해석을 통한 현장의 문제에 대한 생생하고 적합한 지식의 확보를 가능케 하는 질적연구방법은 사회복지 실천의 현장의 모습을 매우 잘 반영하는 토착적 지식과 이론의 개발을 가능케 하는 상당히 유용한 연구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유태균 역, 2001).

따라서 본 연구는 삶의 연장선상에서 노년기의 시작에서 노년기의 수용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연소노인의 경험과 인식을 통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연소노인들은 노년기로의 진입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의 노년기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은 남성들에게 연구의 초점을 맞출 것이다. 연구대상을 남성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 은퇴로 더 급격한 변화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sup>8)</sup> 노동중심의 '회사인간'으로 가족 영역을 희생시키고 공적 영역에서의 삶을 중심으로 살아왔기에, 은퇴 후 가족관계에서의 자원의 부재와 공적영역을 대체할 다른 사회적 공간의 부재는 이후 삶의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 연소노인의 세대적 특성을 살펴보면,<sup>9)</sup> 그 변화의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대상은 남성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성 연소노인들을 대상으로 노년기로의 진입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이 앞으로의 노년기를 인식하는 데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목소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sup>10)</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성 연소노인들을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sup>11)</sup> 질적연구방법은 본 연구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노년기로의 과정을 생생히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연구참여자들의 시각으로 자신의 삶의 양상과 욕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연소노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 8) 은퇴라는 개인적 사건이 자신을 장년에서 노년으로 인식하는데 큰 영향을 준다고 한다. 나이 이외에 노년기를 규정하는 중요한 관점 중 하나는 개인의 '심리적 자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신체적 증후와 더불어 사회적 경험인 것으로 나타난다고 한다(최순남, 2000).
- 9) 한국의 60대는 한국전쟁의 전후의 혼란기에 출생해 절대빈곤의 시기에서부터 인생을 출발한 특수한 역사적 연령층(historical cohort)이다(장경섭, 1995). 이들은 청장년기를 오로지 직장에서 보내며 자신이나 가족보다 직장을 앞세우며 식민지 생활의 여파와 전쟁의 빈곤에서 벗어나고자 '일벌레'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산업전선에서 맹활약을 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가족중심적 생존주의가 자녀 세대의 개인주의와 상충하게 되어 자녀와의 관계 설정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으며, 특히 직장 은퇴 후 자녀에 의한 노후부양의 기대를 별로 갖지 못하게 된 집단이다.
- 10) 노인의 목소리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은, 연구자나 다른 연령집단에게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삶의 측면이라 하더라도, 노인 자신에게는 매우 중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보통 노인들에게 있어서도 자신의 삶을 현재의 시점에서 돌아보고 의미를 찾는 작업이 자아 정체성 유지 및 건강한 삶의 질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많은 학자들 간에 동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한경혜, 2004: 22).
- 11) 패제트(Padgett, 1999)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질적연구방법이 유용하다고 한다. 첫째는 잘 알려지지 않은 주제에 대한 탐구적 접근을 하고자 하는 경우, 둘째는 민감하고 정서적으로 깊이 있는 주제를 연구하는 경우, 셋째는 실제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시각으로부터 '살아있는 경험'에 대한 이해를 얻음과 동시에 그들의 삶으로부터 어떤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는 경우, 넷째는 프로그래밍과 개입에 관한 인과적 측면이 아닌 그 블랙박스의 내면을 이해하고자 하는 경우, 다섯 번째는 양적연구를 하는 연구자로서 자료수집 및 분석을 통해 발견한 내용을 설명하는데 있어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는 질적연구는 매우 적절한 선택임을 강조한다(강철희·김미옥, 2003 재인용: 71). 여기에서 본 연구에서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두 번째와 세 번째라고 할 수 있다.

## 2. 문헌 연구

### 1) 남성 연소노인의 세대적 특징

서구에서 이삼 세기 동안의 사회변동을 불과 사오십년에 압축적으로 겪어온 한국인들은 출생 시기에 따라 매우 상이한 경제구조, 사회관계, 문화환경에 노출되어 살아왔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급격한 경제, 사회, 문화 변동을 반영해 세대에 따라 서로 이질적인 가치관들이 표출된다고 한다(장경섭, 2000: 81). 따라서 남성 연소노인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들 세대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살아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이들의 현재 삶의 모습과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sup>12)</sup>

현재 한국의 60-70세의 연소노인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사람들은 1930년대 중반에서 1940년대 중반 사이에 태어난 세대이다. 이들은 주로 일제시대 말에서 해방 즈음에 태어나, 유소년기에 6.25를 경험한 세대이다. 이들 세대 대부분은 어린시절의 전쟁과 절대적 빈곤의 경험을 공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재홍(1992: 34)은 이들 세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한국전쟁을 겪은 세대에게는 전쟁과 절대적 빈곤이 그들의 의식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外傷의 경험으로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전쟁을 소년기 이후에 겪은 현재의 5.6대 연령층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동질적인 세대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극한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는 생존만이 가장 값진 것이며, 그 밖의 가치는 관념적이며 위선적인 것이라는 교훈을 얻었을지도 모른다. 전쟁을 겪은 세대가 전쟁경험으로부터 얻게 된 기층의식으로부터 해방되지 않는 이상, 그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레드 콤플렉스, 갈등과 혼란보다는 안정과 질서를 추구하는 보수적 성향, 자유 평등 인권 등의 관념적 가치보다는 물질적 풍족함을 중시하는 경향 등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20, 30대가 되었을 무렵, 이들이 속한 한국사회는 1960년대에서 시작해서 70, 80년대에 이르

12) 켈저(Kertzer, 1983)는 현대 사회과학에서 통용되는 세대의 네 가지 대표적 용법으로서, 1) 조부모-부모-자녀 세대와 같이 친족계보(kinship descent)에서 동일 항렬에 속하는 사람들, 2)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동일한 생애주기 단계에서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는 출생 코호트(cohort), 3) 청소년 세대, 대학생 세대와 같이 동일한 생애주기 단계(life stage)에 있는 사람들, 4) 1914년 세대, 전쟁 전후세대와 같이 특정 역사적 시기에 생존한 사람들이라는 용법을 제시하고 있다(박재홍, 2003 재인용: 258). 이 네 가지 용법 중에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세대의 개념은 ‘코호트’로서의 세대와 동일한 ‘생애단계’로서의 세대라는 개념이 합하여 사용하였다. ‘코호트’로서의 의미의 세대는 역사적 사건의 경험 공유를 공통적으로 강조한다는 점에서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며, 이러한 경험 공유가 갖는 의의는 물론 그것이 태도와 행위양식 공유의 잠재적 기반이 된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생애단계’로서의 세대 개념은 무엇보다도 ‘연령 효과’ 측면을 강조하는 개념인데, 동일한 생애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발달과정에서 동일한 과정에 직면한 과정이 동질적 집단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기까지 급격하게 산업화가 이루어진 시기였다. 이들은 1960, 70년대 우리사회의 산업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첫 세대로, 청장년기를 오르기 직장에서 보내며 자신이나 가족보다 직장을 앞세우며 식민지 생활의 여파와 전쟁의 빈곤에서 벗어나고자 '일벌레'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산업전선에서 맹활약을 하였다.

젊은 시절 '산업전사'로 불리면서, 가정을 희생시키면서 일에 매진했던 이들 세대는 최근 IMF를 포함하는 사회경제적 사건들로 인하여, 가장 먼저 충격을 받은 세대이기도 하다. 이들은 조기퇴직을 강요받고 직업에서 물러나야만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박경숙(2002: 85)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55-59세 연령집단의 취업률은 1980년부터 1995년까지는 증가 경향을 보이지만 2000년에 이르러 크게 감소하였으며, 60-64세, 그리고 65-69세 연령집단의 취업률도 비슷한 모습의 증감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995년까지는 취업률이 그 이전 수준과 비슷하거나 약간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2000년에는 취업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는 50대 후반과 흔히 연소노인이라 칭해지는 60대 고연령층의 취업기회가 IMF 위기 상황 속에서 크게 제약되었음을 보여준다.

1960년대, 70년대 우리 사회의 산업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이들은 이전세대와 달리 조직생활과 단절되는 퇴직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노년기에 진입하는 최초의 세대로, 퇴직이후의 생활에 대한 어떠한 준거틀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에 따르는 부양자 역할 상실 및 지위 변화를 경험하면서 노년생활에도 적응을 해야 하는 첫 세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성미애·옥선화, 2002: 2).

## 2) 은퇴 후 삶에 관한 선행연구

우리보다 산업화가 앞선 미국에서는 퇴직에 관한 연구가 1960, 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초기 연구로는, 퇴직이 개인에게 가져다주는 의미에 대한 연구들(Atchley, 1971; Fillenbaum, 1971; George and Maddox, 1977; Wood and Bultena, 1968; Simpson and McKinney, 1966)과 퇴직 후 적응에 대한 연구들(Davidson and Kunze, 1965; Maddox, 1970; Shanias, 1972; Tompson and Kosa, 1969) 등이 있다. 이후 최근 연구들은 초기의 퇴직에 대한 연구가 주로 횡단적으로 접근하였다는 점과 주로 남성 퇴직자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하면서, 은퇴 이후의 과정을 종단적으로 조사한 연구들과(Bosse, 1993; Gall, 1997), 성을 고려한 연구들이(Kim and Moen, 2002) 나타나고 있으며, 그 외 개별인터뷰를 통한 은퇴의 의미에 관한 연구와(Nuttman-Shwartz, 2004; Savishinsky, 2001) 퇴직에 대한 과도한 강조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연구에(Ekerdt, 2004)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퇴직제도가 도입되었으나, 1960-70년대에는 성장위주의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현실적으로 노인세대 중 퇴직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었기 때문에, 퇴직이후의 생활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이후의 생활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졌다.<sup>13)</sup>

13) 은퇴에 대한 연구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퇴직에 대한 태도 및 생활전망을 조사한 연구(이승아, 1998; 최성재, 1989; 태원경, 1996; 허정무, 1993; 호정화, 1998)와 퇴직자를 대상으로 생활적응 및 생활만족도를 살펴본 연구들(김애련·한내창, 1997; 김애순·윤진, 1995;

은퇴에 관한 연구 중에서 은퇴 이후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는, 크게 넷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은퇴에 따른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최성재, 1989; 지연경, 조병은, 1991; 김향은, 1991), 둘째는 은퇴 이후 상태 변화와 그 변화 정도에 관한 연구(김미선 외, 1990; 김애순·윤진, 1995; 김덕성, 1987; 한희자·강은실, 2002) 셋째는 은퇴 이후 적응에 관한 연구(김혜숙, 1983; 이은희, 1984; 허정무, 1993; 백근영, 1994; 김정현, 1996; 김혜숙, 1983), 넷째는 은퇴자의 생활태도에 따른 유형화에 관한 연구(성미애, 1999; 성미애·옥선화, 2002)가 있다. 기존연구의 결과는 많은 남성들의 삶의 상태가 은퇴 이후 위기임을 보여주면서, 은퇴 이후의 적응과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들이 무엇인가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주로 개인의 건강수준, 경제상태, 학력과 같은 사회 경제적 요인들이나, 은퇴 시기, 은퇴의 자발성 비자발성 여부, 개인의 성격적인 요인들과 관련지어 연구되어 왔다. 은퇴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은퇴 이후의 삶이 많은 남성들에게 위기로 인식되고 있으며, 어떤 요인을 갖춘 개인이 좀더 은퇴 후 삶에 적응이 용이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존 연구들은 두 가지 인식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 전제는 은퇴라는 사건은 근본적으로는 개인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은퇴에 대처하고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것은 개인이 우선이므로, 개인의 적응성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상정하고, '어떤' 요인을 갖춘 개인이 좀더 적응에 유리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전제는, 기존 연구들 중에서 적응여부를 살펴보는 연구의 경우, 은퇴 이후 적응의 기준은 노년기로의 적응이라는 점이다.<sup>14)</sup> 노년기 또는 노인을 규정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편의상 연령에 의한 퇴직연령을 노년기의 시작 연령으로 보고, '퇴직연령=노년기시작연령=노령연금수급자격연령'으로 보는 일반적 경향에 따라(최성재·장인협, 2002: 185), 기존 연구들은 은퇴 후가 노년기의 시작이며 은퇴 이후 적응의 기준은 노년기로의 적응이라고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연구의 두 가지 전제는 은퇴 이후 삶을 살펴보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었다. 첫 번째 전제의 한계는, 은퇴에 대한 인식은 기존 연구에서 살펴본 개인적인 요인 외에도 사회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적응이라는 개념을 살펴보면,<sup>15)</sup> 본질적으로 적응이란 자신의 필요뿐 아니라 환경의 요구도 충족시켜 주는 능력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적응은 상황의 변화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사회적 규범의 상태에 따라,

김정현, 1995; 심은경, 1983; 지연경·조병은, 1991; 성미애, 1999)로 구분할 수 있다.

- 14) 기존 연구에서 '은퇴 후는 노년기의 시작이다'는 명제를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알고 사회를 이해하며 부단히 변화되어 가는 사회의 현실에 적응해 나가야 한다. 노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즉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냉철한 현실에 흡수되어 언젠가는 자아 재편성을 이룩하여 현실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특히 변화하는 환경조건과 신체적 정신적 능력에 맞도록 가치나 태도를 조정하는 문제는 노년기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김경신, 1983: 2), "퇴직남성 스스로가 퇴직 이후의 생활변화를 잘 조정하면서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퇴직 이후의 노후적응은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성미애·옥선화, 2002: 6)가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 15) 서병숙(1989: 4)에 따르면 적응이란 대인관계에서 야기되는 상대방의 요구나 기대 또는 집단생활에서 경험하는 집단의 규범에 대하여 개인이 적절히 조정하면서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따라서 퇴직남성 스스로가 퇴직 이후의 생활변화를 잘 조정하면서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퇴직이후의 노후적응은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개인의 적응요인이나 적응정도 역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은퇴 이후의 과정을 사회 문화적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그저 개인의 물리적 환경이나 심리적 만족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이러한 결과가 그들의 삶의 모습이나 욕구를 정확하게 반영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현 은퇴자들의 경우 은퇴 이후 사회적 역할의 변화정도가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이들의 삶에 대한 인식은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 결과들, 즉 개인적 요인에만 초점을 맞춘 연구들로는 은퇴 이후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두 번째 전제의 경우, 조기퇴직의 급증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년기가 이전 시대보다 길어지면서, 개인의 생애주기 역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은퇴 이후는 노년기의 시작’이라는 명제는 재론의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은퇴 이후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앞으로는 기존의 노인의 상과는 다른 노인의 상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전제는 노인 당사자의 목소리와 욕구를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로 위의 전제는 적응의 결과로써의 노년기를 상정하고, 노년기로의 과정은 생략되고 있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는 은퇴에 관한 선행연구는 연구 방법 면에서 살펴보면, 대부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연구들로, 은퇴라는 일시적 사건에 주목하여 한 단면만을 보여주는 양적연구의 한계와 맞물리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3. 조사방법

#### 1) 연구참여자 선정 기준

질적연구 방법은 일상생활의 다양성과 그것이 당사자에게 갖는 의미를 그들의 맥락 속에서 심도 있는 관찰과 이해를 하고자 하기에, 연구참여자의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참여자를 선택하는 의도적 표집방법(purposive sampling)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 선정에 있어서는, 첫째는 연구참여자가 이를 쾌히 받아들이고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공감하는가, 둘째는 연구참여자가 자신들의 생각과 느낌, 경험을 의사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을 정도의 의사표현 능력을 가졌는가, 셋째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간 신뢰 관계 형성이 가능한가, 이 세 가지를 먼저 선정의 전제로 삼았다.<sup>16)</sup> 그리고 다른 한편 표집의 원칙도 염두에 두었다. 선행연구의 요인들을 선정지침으로 삼아, 은퇴 경험, 연령, 퇴직 후 기간, 퇴직 전 직업, 퇴직유형 정도를 고려하였다.

은퇴경험은<sup>17)</sup> 은퇴라는 개인적 사건이 자신을 장년에서 노년으로 인식하는 데 큰 영향을 주기 때문

16) 왜냐하면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길 높은 대화’를 갖기 어렵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앞의 두 가지 전제를 바탕으로 세 번째 전제가 가능한 경우를 선정의 우선순위로 삼고자 한다.



이다. 즉 노년기를 규정하는 중요한 관점 중 하나는 개인의 심리적 자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변화는 신체적 증후와 더불어 사회적 경험인 것이라고 할 수 있기에, 이를 고려하였다.<sup>18)</sup> 연령은 60세에서 69세까지 고루 분포하도록 선정하였다. 퇴직 후 기간은 이들의 적응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1년에서 10년까지 차이를 두었다. 은퇴 전 직업을 고려한 이유는, 직업이 교육수준이나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 전직에 따라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는 점 때문이며,<sup>19)</sup> 은퇴 전후의 변화양상을 명확하게 보기 위하여 은퇴의 개념이 비교적 명확한 관리직, 사무직, 생산직의 전직을 가진 참여자들을 선정하였다.<sup>20)</sup>

조사는 60세에서 69세의 남성 연소노인을 중심으로 총 1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그 외 은퇴를 경험하지 않은 1명의 사례를 비교를 위해 포함시켰다.<sup>21)</sup> 연구참여자의 선정방법은 노인종합복지관, 대한은퇴자협회 등을 통해 직접 접촉하거나, 주변의 60대분들께 선정기준을 알려주고 이에 적합한 사례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뢰기법을 활용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사전에 모두 확정되지 않고, 인터뷰를 병행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참여자를 선정하며, 더 이상 새로운 정보가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을 때, 연구의 참여자 선정을 중단하여, 결과적으로 총 참여자 수는 11명이었다. 이는 질적연구에서 적절한 표본 수는 더 이상 새로운 정보가 나오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sup>22)</sup>

## 2)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 과정은 다음과 같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4년 5월부터 8월까지이며, 자료수집

- 
- 17) 퇴직에 대한 개념정의는 매우 다양하지만, 퇴직을 결정하는 기준에 따라 몇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권문일, 1996: 43-44). 첫째, 응답자의 퇴직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의존하는 정의이다. 둘째, 경제활동참가여부에 따른 퇴직 정의이다. 셋째, 노동시간이나 임금수준에 따른 퇴직 정의이다. 넷째, 주직장(career job)으로부터의 은퇴와 관련된 퇴직 정의이다. 다섯째, 연금수급에 따른 퇴직 정의이다. 이중 본 연구에서는 퇴직이후의 삶을 파악하고자 하기 때문에, 가장 오랫동안 종사했던 주직장으로부터의 은퇴라는 퇴직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 18) 그 외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은퇴를 경험한 대상과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사례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 19) 퇴직 전 직종은 퇴직 남성에게 있어 단순히 경험의 차이를 가져다주는 수준이 아니라 생활수준 및 생활양식,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규정하는 요인이 된다. 일반적으로 전문직, 관리직에서 퇴직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만큼 직업 위신도 높으며, 또한 직업생활에서 요구하는 것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퇴직 후에도 직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성미애·옥선화, 2002: 17).
  - 20) 정년퇴직이 있는 직종이라는 기준은 이미 경제적으로 하층의 노동자들을 제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참여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연소노인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비교해볼 때, 중상의 사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21) 총 11명의 참여자 중 10명의 참여자가 은퇴를 경험하였지만, 사례 K의 경우는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은퇴를 경험한 대상과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어 참여자에 포함시켰다.
  - 22) Lincoln과 Cuba는 유의표집에서 표본의 크기는 정보에 의해 결정되는데, 새로운 표본에서 더 이상 새로운 정보가 나타나지 않을 때 표집을 종료하는 것이 질적연구 표집의 일차적 기준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Patton, 1990).

방법은 심층면접과 관찰을 사용하였다. 인터뷰를 위한 면담 지침은 주로 개방 질문으로 마련하였으며, 이것 또한 조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질문 방식이나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나갔다. 이는 연구자의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참여자의 인식을 심층적으로 끌어내고, 보다 적절한 질문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였다. 연구참여자와의 면접의 횟수는 1회에서 2회 정도 실시하였다. 면접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면접 장소는 복지관 상담실, 참여자의 집, 은퇴자협회 사무실, 공원, 커피숍, 음식점에서 실시하였다.

실제 조사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은퇴 이후 삶에 대한 질문에 매우 적극적으로 자신의 경험과 인식을 표현하였다. 이는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로 현재의 관심사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터뷰해 나가는 과정에서, 연구자는 많은 질문을 하기보다는 인터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정도로 유지하고, 가능한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뷰에서는 크게 은퇴 이후의 경험, 은퇴에 적응하는 의미, 미래의 노년기에 대한 인식 등을 중심으로 참여자의 경험과 주관적 의미를 조사하였다.

###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자료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수집된 자료는 Strauss와 Corbin의 지속적 비교방법(constant comparison method)에<sup>23)</sup> 기반을 두어 분석하였다. 개념들을 지속적으로 비교해 나가는 과정에서 원자료를 다시 검토하는 작업을 무수히 반복하는데, 이는 의미를 누락하거나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치면서 주제의 일관성을 높여 나가 고자 하였다. 따라서 자료분석은 참여자들의 진술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범주화해 나가는 작업이 주가 되었다. 한명 한명의 인터뷰 자료를 통독하면서 개괄적인 범주를 머리 속에 구성해 나가면서, 다른 응답자의 인터뷰 자료를 보면서 범주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범주로 확대해 나갔다. 새로운 범주가 나타날 때마다 다시 앞부분의 인터뷰 내용을 재검토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분석을 시행하면서 가능한 연구자의 주관으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하고, 가능한 참여자의 진술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으며,<sup>24)</sup> 분석의 종료는 상황 안의 사상(事象)의 상징적 수준과 행동수준 양

23) 지속적 비교방법(constant comparison method)이란, 근거이론에 기반한 질적자료의 코딩방법으로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기본적 절차는 텍스트 자료를 검토하고,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비교하며, 그 안에 들어있는 개념들을 확인하고, 이들 개념들의 의미 있는 범주로 분류한 후, 범주들 간의 연계를 제안하는 방법이다(Minichiello et al., 2000).

24) 질적연구는 철학적 배경, 방법적 배경, 연구 목적 등에서 양적연구와 다르기 때문에 연구를 평가하는 기준 또한 양적연구와는 구별된다고 한다. 질적연구의 평가기준은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Lincoln과 Guba(1985)가 제시한 진실성(truth value), 적합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이라는 네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진실성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① 초기 면담시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에 시작하고, ② 참여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분위기 형성하고, ③ 연구자는 개념이나 범주 명명 시에 가능한 참여자와 일정거리를 유지하였다. 적합성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수집하여 결과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일관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① 연구 방

측 면에서 분석이 진행되어 범주(category)가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분석을 종료하였다.

#### 4) 연구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과정 동안 연구참여자들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참여자와의 면담 시작 전에 연구의 목적과 연구 방법을 설명하고, 면담 내용을 녹음하여 동의를 얻었다. 면담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개인의 사적인 상황은 비밀로 유지하며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점과 연구참여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이 면담을 마칠 수 있음을 알려주어 연구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노력하였다.

### 4. 연구 결과

#### 1) 연구참여자의 특성

참여자	연령	퇴직후 기간	퇴직 전 주 직업	퇴직유형	은퇴과정 유형	학력	경제 상태
A	60세	7개월	한전공무원	정년퇴직	완전 비취업형	대졸	상
B	61세	1개월	철도청공무원	명예퇴직후 재취업	직업이동형	고졸	중
C	61세	10년	일반관리직	명예퇴직	취업-비취업 반복형	고졸	중
D	61세	6개월	연구직	정년퇴직	완전 비취업형	대학원졸	중상
E	62세	2년	노동운동가	정년퇴직	완전 비취업형	고졸	중상
F	65세	4개월	생산직	자발적 퇴직	취업-비취업 반복형	고졸	하
G	65세	5년	생산직	정년퇴직	취업-비취업 반복형	중학교 중퇴	하
H	65세	5년	대기업관리직	자발적 퇴직	완전 비취업형	대학원졸	중
I	69세	6년	일반사무직	정년퇴직	완전 비취업형	고졸	중
J	69세	2년	수의사	퇴직규정이 없는 직종, 자발적 퇴직	완전 비취업형	대졸	상
K	60세	-	시헌운동가	퇴직규정이 없는 직종	현재 종사	대학원졸	중

법과 자료수집 및 분석과정을 자세히 기술하고, ② 교수와 질적연구를 공부한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에게 연구 결과의 평가를 의뢰하여 연구과정 전반과 연구결과에 관한 자문을 받아 협의 수정하였다. 중립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① 사전에 어떤 결과나 시각을 증명하려는 의도 없이 연구를 시작하며, ② 현장에서 나타난 그대로를 파일에 담아 실제의 상황을 왜곡하지 않고 진실된 시각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조사는 60세에서 69세의 남성 연소노인을 중심으로 총 11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중 은퇴를 경험하지 않은 한 명의 제외하고, 은퇴를 경험한 10명을 중심으로 참여자의 특성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이들은 모두 유배우자이며 활동에 별 이상이 없을 정도로 건강하였다. 퇴직 후 기간은 2년 미만 이 2명, 2년에서 5년 미만이 4명, 5년에서 10년까지는 4명이었다. 퇴직 전 직업은 공무원이 3명, 관리직이 2명, 사무직이 1명, 연구직이 1명, 노동운동가가 1명, 생산직이 2명이었다. 퇴직 유형은 정년퇴직 이 5명, 명예퇴직이 2명, 자발적 퇴직이 3명이었다.

일자리 이동에 따른 은퇴과정에 따라 구분하면(박경숙, 2003: 103-139)<sup>25)</sup> 직업이동형은<sup>26)</sup> 1명, 완전 비취업형은<sup>27)</sup> 6명, 취업 비취업 반복형은<sup>28)</sup> 3명이었다. 이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직업이동형에 속하는 B는 비교적 짧은 비취업상태를 경험하였으며, 매우 흔치 않은 ‘운이 좋은’ 사례이다. 완전 비취업형에 속하는 참여자는 경우에 따라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상층정규직 임금 근로자로서 사회보험 혜택을 받으며 정년에 의해 노동시장에 이탈한 사례(A, D), 둘째는 고소득 자영 인과 같이 공식적인 정년 규정을 받지 않으면서 자산소득을 확보하고 있는 사례(J), 또는 연금은 없지만 어느 정도의 자산소득을 확보하고 있는 사례(E, I), 셋째는 개인자산이나 연금자산이 적으며 또한 가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H)가 완전 비취업형에 속한다. H의 경우는 몇 년 동안 여러 직업을 이동하는 취업 비취업 반복형이었지만, 현재는 취업의 의욕을 상실하여 비취업형으로 포함 되었다. 취업- 비취업 반복형에 속하는 사례로는 C, F, G가 속한다. C는 명예퇴직 후 여러 직업을 이동하다가 현재는 농사를 짓고 있으며, F와 G는 현재 구직을 위해 고령자취업센터에서 등록한 상태이다.

- 25) 박경숙(2003: 103-139)은 고령자의 일자리 이동 및 은퇴과정을 크게 네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는 동일직업지속형(21.7%) 두 번째는 직업이동형(3.4%), 세 번째는 완전비취업형(65.9%), 네 번째는 취업비취업반복형(9.1%)이 그것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의 경우, 은퇴경험이 있는 사람을 참여자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네 유형중 동일직업지속형의 경우는 속하지 않는다.
- 26) 비취업상태를 거치지 않고 직업 이동을 경험한 고령자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매우 작은 수치에 해당된다. 매우 소수의 고령자가 서로 다른 직업 사이에서 일자리 이동을 경험하였다. 이 유형에 속한 고령자는 건강상태, 교육수준에서 선별적이다. 고학력이며 건강한 고령자에서 직업 이동 경향이 크게 나타난다.
- 27) 일반적으로 완전비취업상태에 머무는 경향은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더 강하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완전비취업률이 증가한다.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자에서 완전비취업률이 높다. 크게 네 형태의 완전 비취업상태를 구분할 수 있다. 우선은 주로 상층정규직 임금근로자로서 사회보험 혜택을 받으며 정년에 의해 노동시장에 이탈한 경우이다. 이 유형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노동경력 덕분에 은퇴 후에도 소득원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유형은 고소득 자영인과 같이 공식적인 정년 규정을 받지 않으면서 노후연금이나 자산소득을 확보하고 있는 고령자가 속한다. 세 번째는 자녀로부터의 지원이 가능한 상황에서 노동시장을 이탈한 경우이다. 네 번째는 개인자산이나 연금자산이 적으며 또한 가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 28) 비취업에서 새로이 일자리를 가지는 경우는 건강상태가 양호할 때, 혼인상태가 변하였을 때, 가구 주와의 관계가 변하였을 때 이루어질 개연성이 크다. 가족관계의 변화와 일자리 이동과 밀접하게 관련됨을 시사한다. 또한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이 유형에 속할 개연성이 낮아지고 있다. 과거 직업에서는 단순노무직에 종사한 고령자가 취업과 비취업을 반복할 개연성이 크며, 전문직이나 사무직에 종사한 고령자는 그 개연성이 약하다. 또한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않은 고령자에서 반복 취업-비취업 개연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적어도 취업-비취업 반복형은 정년제나 사회보험 혜택을 받은 고령자의 노동시장 이탈 형태는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학력은 중졸 이하가 1명, 고졸 이하가 4명, 대졸 이하가 2명, 대학원졸 이하가 2명이다. 경제상태는 가구 전체의 경제 수준으로 평가해 볼 때, 2명이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중상정도의 수준이 2명, 중정도의 수준은 4명, 저소득층은 2명이었다.

## 2) 결과 분석

### (1) '강제'퇴직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단절

10명의 참여자들의 퇴직 유형은 자발적 퇴직에서 정년퇴직 그리고 명예퇴직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사업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직한 사례를 제외하고, 퇴직의 의미는 대체로 '강제적' 퇴직으로 인식되었다. A는 고위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사례로, "60대라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에너지가 있고 더 하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젊은이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퇴직을 해야 했고, F는 생산직 근로자이며 자발적 퇴직을 한 사례로, 직접적인 퇴직의 압력은 없었지만 임암리의 '압력'으로 인하여 퇴직하게 되었다고 한다.

“힘들고 또 젊은이들이 오면 나이 먹은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어렵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그만둔 거지. 퇴직한 것은 내가 조금 더 할 것인데, 그래도 더해서는 안 될게 젊은 아이들이 못마땅해 하고 서로 대화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기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사회에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마음이 가벼울 텐데 그런 생각은 가져요”(F)

위에서 언급한 A와 F는 은퇴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압박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경우로, 비교적 압력을 적게 느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참여자중 직접적으로 강한 퇴직의 압력을 느낀 사례는 명예퇴직을 한 C라고 할 수 있다. 진급을 번번이 누락시킴으로 명예퇴직을 강요당한 C에게 강제적 퇴직의 압력은 지금까지도 “혹시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지 않았나”하는 자책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외형상의 자발적 퇴직에서부터 명예퇴직까지, 대부분의 퇴직 경험은 참여자들에게 '자발적'이라기보다는 '강제적'이라는 의미가 강하였다. 강제적으로 밀려난 것으로 인식되는 퇴직경험은 참여자들에게 미래에 대한 기대보다는 막막함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즉 앞으로 다가올 시간은 어떤 새로운 계획이 필요한 시간이 아니라, 어떠한 '재난'에 대비해야 하는 시간으로 인식되었다. 퇴직 후 생활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주변의 조언을 통하여 확산된다. 은퇴를 경험한 선배나 친척들의 “정년 후 삼년을 잘 견뎌야 오래 산다”는 조언에, 은퇴 후의 몇 년 동안은 고통스럽지만 피할 수 없는 일종의 사춘기와 같은 과도기로,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회자되고 있었다.

“어. 회사 다닐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바쁘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집에 있으니까 그것도 아픈 것 같고. 건강의 적신호가 오더라고요. 정년으로 내가 끝났다 조금 아프다 내가 늙는구나 이제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이중삼중으로 겹치는 거야. 2-3년이 되면 받아들여지는데 정년퇴직 얼마 안된 사람은 아프다구. 나보다 2년 먼저 한 사람은 괜찮아, 괜찮아 그러더라구 아파죽겠어 그러면. 나는 암살이

고 그 양반은 겪었으니까 편하게 지내는 거고”(D)

퇴직 후 생활 대비에 필요한 일 순위는 ‘이전의 것을 버려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이를 퇴직 후 생활의 적응을 위한 ‘격언’으로 꼽았다. 앞으로의 시간은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할 시간이 아니라 재난에 대비해야 할 시간이기예, 퇴직 후 생활의 시각은 설렘보다는 두려운 마음이 앞서는 경우가 많았다.<sup>29)</sup>

“다른 사람들보다는 쉽게 살았지. 쉽게 살아서 앞으로가 더 어렵지 않겠다. 젊었을 때 많이 들볶으면 쉬울 텐데...”(D)

퇴직 후 일 년 내지 이년정도의 기간 동안, 자신의 역할을 찾지 못하고 칩거생활을 경험하는 이들도 있었다(C, E, I). 방안에서 일 년 내지 이년정도의 단절된 시간을 보낸 후, 이들은 이 기간을 “혼났다”고 표현하였다.

## (2) 계속되는 일에 대한 지향

퇴직으로 사회문화적 단절을 경험하고 이전과는 다른 역할이 요구되지만, 참여자들은 여전히 일을 통한 역할을 지향하였다. 퇴직 연령에 상관없이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통해서 사회적 역할을 유지하고 싶어하였다. 다시 일을 하고 싶은 이유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꼽았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 중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C, F, G의 경우, 가족의 지원이 가능하여 생계 자체가 위협받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가족의 지원을 받는 것을 곤혹스러워하며 취업을 통해 자립을 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연금이나 자산으로 어느 정도 경제력을 확보한 참여자들도 일을 하고 싶어하였다. 일의 의미는 참여자들의 성향이나 자산 확보 여부에 따라 조금씩 달랐으나, 경제적 수단 의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존재감 확인이나 생활 통제의 역할을 꼽았다.

“직장생활을 하면은 항상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직장생활을 함으로써 무료함이 없어요. 네, 직장생활을 하면은 한 달에 한 번씩 단합대회도 하고 야유회도 가고 뭐 그냥 저기가 있는데 그게 단절되니까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C)

“경제적인 의미에서 혹은 소일거리의 의미에서”(G)

“회사에 가서 일하고 싶어요. (현재 일은) 한 달에 두 번 (일하러) 가는데 가면 (더) 하고 싶고. 돈이 아니라 일에 대한 거지”(D)

참여자들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배경으로, 자신의 세대에서의 일은 지금의 세대와는 다른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회상하였다. 배고픔의 시절을 지나 산업의 역군으로 성취감을 맛본 H에게는 아무리 고

29) 퇴직 후 생활에 대한 기대를 표현한 참여자는 본 연구에서는 A가 유일하였다.

된 일이라도 그것은 ‘즐거움’이고 ‘재미’라고 생각되는 반면, D에게 자신의 세대는 “오직 일만 하고 놀 줄 모르는 바보”(D)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우리는 일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뭐 8시간 일하고 쉬고 그런 거 없어요. 24시간이고 뭐고 잘 돌아 가면 관계없는데 24시간이고 뭐고 저희들은 일을 해야 해요. 저희는 그런 사고방식이예요. 지금 내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일을 했으면 난 이제 퇴근한다는 개념이 아니예요. 그게 우리 60년대, 70년대, 80년대가 그렇게 살아 온 거거든요. 연봉제를 해 봤어요. 그래서 같이 일사해도 3,4배를 더 받는 사람도 있고 하지 못하게 받게 해 봤어요. 그건 경쟁에서 이겨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우린 스트레스 개념이고 언어 자체도 몰랐어요. 80년대 이후에 스트레스니 뭐니 하고 40대가 급히 스트레스 때문에 죽고 하는 얘기가 들었지, 옛날에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 없어요. 일을 못해 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일하다가 죽었다는 얘기는 못 봤어요. 고혈압으로 쓰러져 죽는 건 못 봤어요. 그런 우리하고 달라요”(H)

이들은 1960, 70년대 우리사회의 산업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첫 세대로, 청장년기를 오르기 직장에서 보내며 자신이나 가족보다 직장을 앞세우며 식민지 생활의 여파와 전쟁의 빈곤에서 벗어나고자 ‘일벌레’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산업전선에서 맹활약을 한 세대로, 본 연구의 참여자들에게서도 이러한 세대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일벌레’로 살아온 이들이기 때문에, 일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시도는 퇴직 이후에도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취업을 통해 사회로 회귀하고자 하는 욕구는 모든 참여자들에게 있었지만, 이러한 욕구는 참여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표출되었다. 크게 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자신을 ‘실업자’로 간주하는 경우와 ‘퇴직자’로 간주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실업자로 간주하는 경우는 C와 H로, 이들은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주 직업에서 퇴직을 경험한 경우이다.<sup>30)</sup> 자신을 퇴직자로 간주하는 경우는 A, D, E, G, I로, 60세가 넘으면 ‘노인네 일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이다.<sup>31)</sup>

참여자중 자신을 실업자로 간주한 참여자는 구직의 경험을 통하여 자신이 다른 실업자와 동등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에 대한 자부심으로 시작한 도전은 한결같이 ‘나’에 의해서 좌절로 끝났다.<sup>32)</sup> 은퇴 후 무언가를 이루려는 열정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은 ‘무모

30) 이들은 퇴직할 당시, 50대였기 때문에 자신을 퇴직자로 규정하기보다는, 실업자로 규정하고 있었다. 능력이나 건강 그리고 외모의 ‘젊음’을 자신하는 공통점이 있었으며, 특히 H의 경우는 자존감이 높고 성취욕이 강한 성향이었다.

31) 퇴직자로 자신을 규정한 참여자들은 계속 일을 하기 원했지만, 모든 이가 재취업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소위 ‘노인의 일자리’라는 곳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60 되가지고 61인데 환갑까지 먹어가지고 뭐 할 것이 있겠느냐”, “어느 정도 건강도 내 육신도 생각해볼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E)는 생각으로 재취업을 시도하지 않았다. 하지만 E가 재취업을 시도하지 않을 수 있던 배경에는 자산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이와 비교하여 자산이 확보되지 않은 F는, 어떤 일에 상관없이 요즘 같은 실업시대에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하였다.

32) C는 명예퇴직을 한 뒤, 첫 번째는 같은 직종의 임시직을 구하려고 하였지만 좌절되었고, 두 번째는 이전의 자신의 업무의 범위를 넓혀 일반적인 관리직에 취직을 하려고 하였으나 나이가 많다는 이

한' 열정과 '쓸데없는' 지식으로 간주되면서, 이제 고령 실업자가 할 수 있는 것이란, 퇴직자 집단과 마찬가지로 '노인네 일자리'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퇴직하고 잘 된 사람들이 없어요 뭐 해보려고 하다가 다 망하고, 뭐 투자했다가 망하고.. 그래서 대부분 경비로 들어가 있더라고요”(C)

그러나 '노인네 일자리'로 눈높이를 맞춘 퇴직자라 할지라도, 그 일자리조차도 그리 쉽게 생기지는 않았다. 재취업을 위해서 “나이 많다고 힘주면 안 된다”는 취업센터 직원의 조언에 고개를 끄떡이며, 고령화시대라는 이유로 젊은이도 일을 못하는 실업시대라는 이유로 받는 연령차별은 “그러려니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현실”(G)로 받아들여도, 그래도 재취업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령자취업알선센터에 구직신청 중인 G와 F는 취업이 늦어짐에 따라 불만을 토로하였다.

“어떻게 먼저 보도된 내용을 보면 쉽게 잘 될 것 같더니 내가 겪어보니 엄청 어렵네. 다들 얘기 들 어보면 실질적인 저전 없다 괜히 방귀 소리만 쫓지, 보도만 그렇게 했지, 하늘에 별따기 바늘구멍이지 다 그래요 정책이 잘돼 이런 사람 없어요 하나의 정책뿐이다”(G)

그렇지만 이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자신의 자녀와 관계가 되어 있는 요즘의 청년실업 세태이다. 자신의 구직이 혹여 자식의 취업을 막는 것은 아닐까라는 우려로, 현재 자신의 취업의 욕구를 강하게 표현하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IMF로 경제가 나쁜 상태로 쪽 왔는데 젊은 사람들도 정리하고니 뭐니 죽겠는데 육십 넘은 노인네 가 뭐 그러나 할 텐데...”(E)

이러한 일련의 취업구조에서의 연령차별이나 사회적 배제의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참여자들은 자신이 노인임을 조금씩 인지하기 시작하였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아직도 자신이 노인임을 인정하지 않지만, 사회적 역할이 없다는 점은 자신을 노인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이는 현재 일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B와 K)를 통해 분명하게 비교되었다. B와 K는 자신을 아직 노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반면, 그 외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자신이 노인이 아니라는 점을 단호하게 부정하지는 못하였다. 일을 통해서 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이들에게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

유로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세 번째로 잡무를 알아보았는데 “나이는 내가 나이를 먹어도 헬기왕성해서 할 수 있다고 하여도” 역시 젊은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한다. 결국 직장을 알아보는 것을 포기하고 1년 동안 집에서 지내다가, 네 번째로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였다. 그렇지만 주위사람들의 만류로 인해서 도중하차를 하였고, 현재는 농사를 짓고 있었다. 물론 C의 사례와 같이 실패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전직 철도청 공무원이었던 B는 관련 사기업에 '스카우트'되어 바로 재취업이 된 사례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로 B 자신도 “나 같은 경우는 아주 운이 좋았다고 봐야지”라고 평가하였다.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한 H도 역시 C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관련 분야의 일을 찾다가 좌절되고, 자영업을 시작하였다가 망하고 나서, 단순노무직으로 눈높이는 낮추어 일했다고 한다.



자아와 개인적인 자아와의 불일치를 경험하는 비율은 적으리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또래의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점은 역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나도 동료가 있어야지 의논도 하고 그럴 텐데 동료가 없어. 나와 같은 또래가 그래서 굉장히 외로워, 그게 또 하나 나도 여기서 리타이어 되는 거 아니냐, 실무에서 리타이어 한다는 거 나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데 사회적인 현상에 대한 스스로 느낀 프레셔가 되는” (K)

참여자들은 자신이 사회로부터 ‘쓸모없는’ 노인 집단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감지하면서, 앞으로 노년에 대한 기대는 점점 줄어든다. 하지만 앞으로 노년에 대한 기대 축소는 자신의 노인성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지고 지면서, 노인이 되어가는 현재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보다, 방관자(타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나타난다. 타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노인은 각각의 개별성이 존재하는 집단이 아니라, 그저 노인이라는 이름 하에 존재하는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된다.

“나이 들면 처량해지는 것 밖에 없는 것 같애. 어차피 갈 일만 남았구나 저 세상으로 갈 일만 남은 사람밖에 없구나. 나도 그렇고 저 사람도 뭐. 요즘 차 없는 사람 있어요? 밥 세끼 못 먹는 사람 있어요?... 자기가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은 자기가 어디가 아프다든지 그러면은 자유롭게 자기가 좋은 약이라도 쓸 수 있고 희망하는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게 있는 것이지. 뭐 돈이 있다면 그런 게 하나 부럽다면 부러운 것이지 그 다음 거는 똑같은 거예요”(E)

### (3) 사회적 가치로 평가되는 노년기

60대의 연소노인은 이전 시대와는 달리 노인이라고 부르기 다소 ‘미안한’ 나이가 되었지만, 참여자들은 60대가 되면서 종종 노인 대접을 경험한다. 모임에서 음식을 가져다준다거나, 모임의 회비를 안 받는다거나, 혹은 모임의 장의 역할을 물려주는 경우가 그러한 예이다. 노인 대접은 노인을 편안하게 모시기 위한 배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 노인에게 능동적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노인대접은 노인다운 행동을 요구하게 되고, 노인다운 행동이란 일종의 ‘체면’을 지키는 행동으로, 대부분 조용히 물러나 있는 수동적 행동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았다. 참여자들에게 이러한 노인대접은 ‘나서지 마라’라는 압력으로 해석되었다.

“이런 게 있어요. 그전에는 50대하고 60대하고 차이가 있어요. 제가 50대에는 제가 모임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60대에 들어서니까 그런 것은 다 필요 없고, 뒤에서 참여나 잘해주고 나설 때가 아닌 것 같다고 차이가 들더라고요”(C)

퇴직과 일상생활에서의 단절의 경험은 참여자들에게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듯한 불안감을 안겨준다. 이러한 불안감은 자신의 노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맞물리면서, 노년에 대한 평가는 사회적 평가에 예측되는 결과를 도출한다. 사회적 평가에 예측된다는 것은 타자에게 호의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

에 가치를 부여하고 타자의 눈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타자의 판단기준을 수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상은 앞으로 어떠한 노인이 되고 싶냐는 질문의 대답을 통해서 잘 드러난다. “정신적으로 수양을 해서 남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외적 관리 체력관리를 해야겠고, 몸치장도 신경을 써서 외형적으로 남 보기 좋도록 해야 하겠고”(A)와 같이 타자의 시선에 집중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자신의 내면의 충실화의 방향으로 흐르기보다는, 타자에게 호의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지가 중요한 관건으로 더욱 크게 작용하여, 자신이 ‘노인이 되면 어떠한 생활을 할까’라는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노인이 되면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 혹은 ‘노인이 되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남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에서 언급한 성인후기의 발달과제와는 상반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성인 후기의 발달 과제는 사회와 자아에 대한 개인의 정도를 적절하게 조절해 나가는 것으로, 자아에 관심을 더 집중함으로써만이 외부 세계에 대한 더욱 큰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며, 이것은 이기적이고 허영적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정반대라는 것이다. 그것은 사회로부터 주어진 보상에 대한 흥미보다는 자신의 내적 자원을 활용하는 데 더욱 흥미를 느낀다는 것을 의미하여, 자신의 내면에서 외치는 소리들을 더욱 잘 들을 수 있고, 그 소리들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외부 세계의 목소리와 현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만, 자아가 좀 더 큰 우선권을 갖도록 균형을 새롭게 잡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성인후기의 발달과제와는 상반되게,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충실하기보다는 외부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 (4) 노년 의미의 동공화(洞空化)

참여자들의 노년기에 대한 타자화된 시선은 노년기를 자신의 삶의 한 단계로 수용하기 어렵게 하고 있었다. 노년기를 자신의 삶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방관자의 입장에서 노인을 하나의 집단으로 여기거나 혹은 노인을 죽음과 동일시되는 단계로 생각하면서, 노년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어떤 노인이 부럽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건강한 노인과 경제력 있는 노인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사는 노인이 부럽냐는 질문에는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대답하지 못하였다. 삶의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과 경제력 외에, 노년기의 구체적 삶의 모습에 대한 상은 좀처럼 그려지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노년기 삶의 구체적 상의 부재의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중 하나로 이전 노인 세대의 영향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참여자들이 바라보는 노인의 공간은 주로 공원이나 산이나 혹은 경로당이다. 공원이나 산을 하릴없이 어슬렁거리기, 경로당에서 쪼그려 앉아 하루 종일 화투치기, 길거리에 삼삼오오 모여앉아 대낮에 소주마시기 등과 같은 모습으로 기억된다. 물론 골프를 치거나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는 노인들도 있지만, 이들은 돈이 아주 많은 예외적인 경우라고 간주된다. 참여자들은 이전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무료하고 가치 없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화투를 치면서 시간을 때우는 모습은 이들에게 가장 밋고 싶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었다. 이전 노인 세대에 대한 부정적 상은 밋고 싶은

노년기의 구체적 삶의 모습을 제시해 주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전 노인의 부정적 상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닳지 말아야 할 부정적 모델의 역할을 함으로써, 이전 세대 노인의 모습을 지양하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참여자들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다른 계획은 없고, 건강유지가 계획”이라는 대답을 자주 말하였다. 이는 퇴직 후 재취업의 좌절 경험과 이전 노인 세대의 모습을 바탕으로, 노년기의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목표는 건강유지라고 여겨진 것으로 보인다. 건강유지라는 삶의 목표는 퇴직 후 기간이 지나감에 따라, 점차 이들의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되어가고 있었다. ‘건강을 위해서는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자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루 생활의 시간표를 만들어주고, 자신의 생활을 통제해 주며, 존재의 효용감까지 느끼게 해 주고 있었다. 하루생활의 시간표를 만들어주고, 자신의 생활을 통제해 주고, 효용감을 느끼게 해 주는 역할은 앞에서 참여자들이 언급한 일의 역할과 매우 유사하였다. 다시 말해, 일의 역할이 이제는 건강유지라는 목표로 대체되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예는 H가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성취감이 강하고 적극적인 성격의 H는 퇴직 후 재취업이 되지 않아 커다란 좌절을 경험하였다. 이후 그는 복지관과 헬스클럽을 다니며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였다. 복지관을 다니는 이유로 무엇을 새롭게 배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건강을 위해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임을 언급하였다. H는 건강유지를 위한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생활에 만족감과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얻었다고 한다.

“현재가. 옛날에는 열심히 일하고 해서 자유니 뭐니 그것보다도 우리 가족 위하는 것만 생각했지, 내 몸 컨트롤하고 이런 거 못했거든? 인체 내 몸 컨트롤하면서, 또 가정 같은 것도 내가 피해 주지 않으면서 돕는 일만 하니까 집에서 뭐 만족하게 느끼는 거지”(H)

“옛날에 여가가 어땠어? 아까 그래서 레크리에이션이고 뭐고 필요 없다는 거야. 먹는거 다음에 자유 그담에 레크리에이션이라니깐. 지금도 뭐 먹고 사는게 편안하니까 가서 골프 치러 뭐 하러 나오지. 굶어죽겠는데 골프 치러 어딜 다녀? 생각을 해봐. 다르다구 그건 자유를 넘어서 사람들이야. 옆에서 싸움하던 말든 자기만 행복하면 돼. 그게 레크리에이션의 하나의 기본이 거거당. 그게 자기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거거당. 육체와 정신적인 거를 건강하게 하는 게 레크리에이션인 거거당. 여기서 춤추고 뭐고 하는 게 다 뭐야. 건전한 정신과 육체를 갖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노인네들 여기와서...”(H)

사회에서는 이들의 ‘늬움’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건강유지의 활동을 통해서 H는 자신의 ‘젊음’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러나 건강유지를 통한 자신의 효용성의 확인은 개인적 차원의 단순한 의미만을 부여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여가를 즐길 수 있다는 자체가 옛날과 비교하면 행복하기는 하지만, 여가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쓸모있는’ 존재라는 의미를 확인하기에는 부족하였다. 여가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면서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고 말한 H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암울한 상을 말하고 있다. 건강유지라는 목표는 하루하루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삶의 내면적 의미까지 채워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sup>33)</sup>

“나이가 들면은 희망이라는 것은 점점 점점 사라진다고 봐야 돼. 지구상에서 희망이라는 건 사라지는 거지, 거기서 희망을 가질 수는 없어”(H)

#### (5) 노년의 달라진 가치 지향

퇴직 이후 2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면서, 퇴직 생활의 윤곽이 잡혀가고 있었다. 연구의 참여자 10명 중 2년 이상인 참여자는 총 6명(C, E, G, H, I, J)이다. 농사를 짓거나(C),<sup>34)</sup> 복지관에 나가거나(E, H, I),<sup>35)</sup> 건강이 좋지 않아서 요양을(J) 하였다.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은 G는 고령자취업알선센터를 통해 구직활동을 계속 하고 있었다.

은퇴 생활을 경험한 참여자들은 은퇴 생활에 적응의 방법으로 두 가지를 꼽았다. 하나는 ‘많이 버리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빨리 노인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은퇴 후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가졌던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전의 직업적 지위, 경제력, 가정 내에서의 위치 등이 버려야 할 것에 포함되는 목록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지위를 가졌던 참여자는, 그 변화의 폭이 급격하여 더욱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버려야 할 것의 목록에는 이전의 지위에서 얻은 명예심이나 가족 내의 위치나 경제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쌓아온 지식이나 경험도 포함되었다. 지식과 경험으로 생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던 참여자들에게 이제껏 자신을 유지하게 해 주던 경험이나 지식이 폐기처분되는 경험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에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노력으로 어쩔 수 없기에,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무언가 하고 싶다는 열정과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은 계속되는 좌절의 경험으로 ‘무모한’ 열정과 자부심으로 간주되면서, 도리어 그러한 것들이 자신의 적응을 어렵게 하는 방해물로 작용한다고 깨닫는다. 따라서 적응을 빠르게 그리고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쓸모없는’ 노인임을 빨리 수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지금은 배웠던 안 배웠던 늙어가는 건 똑같이 늙어가는 거야. 배웠다고 많이 배웠다고 털 놓고 그런 거 아니잖아? 내가 66세면 그냥 66세로 가는 거지 인생이... 너는 엘리트니까 젊고 그런 거 아니지. 그런걸 빨리 극복하면은 봉사도 하고 편안하게 갈 수도 있는데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절대로 이게 안

33) 이는 이들 세대의 특성이라고 할 수도 있다. 유기상(1997)에 따르면, 현재 고령 세대가 이해하는 여가에 대한 인식은 이전부터 계속해온 일 중심의 생활에 대한 것인 반면에, 청장년의 여가에 대한 인식은 취미, 스포츠, 야외활동 등을 즐기는 생활로서 여가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인식의 차이는 여가대백이 단순히 즐기는 생활 위주로 진행될 때, 고령세대가 향유하고자 하는 이전부터 계속해온 일 중심의 여가생활과는 괴리를 가져다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34) 여러 번의 구직의 어려움을 겪은 C는 마지막으로 농사를 선택하였으며, 현재는 농사로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었다고 한다.

35) E는 은퇴 직후에는 함께 복지관에 가자는 부인의 권유에 나는 “복지관은 노인네들만 모이는 곳이니니까 더 노인네가 되는 것 같아서. 내가 노인네 측에 들어가면 나도 같이 늙어질까봐 안 들어 갈라구 그랬다”고 한다. 그러나 점점 무료한 생활에 “나도 나이를 먹은 거니까 내 스스로가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변화되어, 은퇴 후 2년 후에 복지관에 등록했다고 한다.

이루어져. 여기도(북지관도) 나올 수가 없다니깐. 돈 없으면 산행이야 산행, 도시락 싸 가지고 산에 다니는 거야. 자연과 벗 삼아서 다니는 거지. 나처럼 하면은 행복할거야. 내가 봐서는 그래. 노인네들은....”(H)

이전의 것을 버려야 하고 ‘쓸모없는’ 노인임을 수용해야 한다고 다짐하면서, 차츰 생활은 표면적으로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sup>36)</sup> 북지관에 다니면서 여가생활을 즐기고, 운동을 다니면서 건강을 다지고, 농사나 단순노동을 하면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삶의 내면의 의미에 대한 공허함은 계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들은 건강유지라는 목표 외에, 내면의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는 일을 새로운 목표로 삼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황혼기에 뭔가 남기고 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봉사’를 하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하였으며, 그 중에서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하는 것을 함으로써 자신의 존재의 의의를 확인하고 싶어하였다.

“방금 말한 것처럼 인간 구제 사업하고 싶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시체 만지는, 교우들 마지막 가는 길에 해주는.. 원주 카톨릭 센터도 있고, 맞은편에 원동성당도 있고 거기서 청년시절 했으니까 텃밭이 많아요.. 남 안하는 것, 그런 것을 해야죠. 뜻있고 남이 안하는, 필요로 하는 것 해야죠. 돈은 못 벌었어도 몸으로 실천해야죠”(G)

흔히 노년기의 봉사활동이나 남들이 꺼려하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년기 자아의 사회적 확대 대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곤 한다. 그러나 참여자들에게 보이는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함으로써 사회적 기여를 하고자 하는 지향이 과연 노년기의 자아의 확대인지, 아니면 사회적 배제로 인한 자구책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 5. 논 의

은퇴 이후 연소노인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은퇴 후 연소노인들은 일을 통한 역할을 계속 지향하였다. 그러나 일자리가 줄어들어 가는 것은 세계적 추세인데다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고 취업예비군들이 넘쳐나고 있어, 경제성장률이 회복되더라도 과거와 같은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연소노인의 일에 대한 지향을 낮추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글은 일을 중심으로 그들의 포부와 야심을 낮추는 ‘냉각과정’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앞으로의 노년기를 어떻게 조망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36) 표면적으로 안정화를 찾고 있다고 한 이유는, 참여자들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신을 노인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적 차원에서는 노인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개인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의 불일치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아직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수용과 자신에게서의 의미과약 부분이 대립되고 있어서, 둘 간의 갈등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곧 사회화의 실패나 심리적 불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노년기로 들어가는 초기 단계로 자아의 불일치는 이들에게서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하였다.

연소노인의 일에 대한 포부는 자연적으로 축소되는 것은 아니었다. 노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야심 달성에 실패하는 경험을 하고 있고, 그때마다 포부를 낮추도록 요구받고 있었다. 현재의 노동체제로는 이들의 포부를 실현시켜주기 어렵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알고 있기 때문에, 외면적으로 이들의 포부와 야심은 점점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사회적 배제의 과정은 단순히 이들에게 일에 대한 포부와 야심만을 빼앗는 것은 아니었다. 사회적으로 아무런 역할을 없는 현재 자신의 모습과, 과거 앞 세대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미래에 될 노인의 상에 대한 계획까지 빼앗고 있었다.

앞으로의 노년기에 대한 암울한 상은 더 이상 앞으로 나이를 먹고 싶지 않은, 그래서 현재에 상태로 머물고 싶은 마음을 낳는다. 따라서 현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이를 현재의 목표로 설정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연소노인의 사회적 자아와 개인적 자아간의 괴리는 더욱 커지게 된다. 사회는 연소노인의 젊음은 배제하고 오직 '늙음'에만 초점을 맞추는 반면, 연소노인은 늙음을 배제하고 오직 '젊음'만을 지향하는 양상이 발생한다. 둘 간의 어느 정도의 간극은 자연스럽다고 볼 수도 있지만, 너무 커다란 차이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젊음과 늙음 사이의 분열을 극복하고, 새로운 형태로 자신의 젊음을 유지하는 것이 이들의 발달과제라고 한 레빈슨의 말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sup>37)</sup> '젊어지려는' 개인과 '조로(耄老)시키는' 사회사이의 괴리감은 연소노인의 삶의 만족감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개인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회는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노년기 취업이다. 노년기 취업에 대한 사회 기존의 입장은 개인적 차원의 욕구 해결이다. 이러한 입장은 노년학에서의 노년기의 적응을 강조하는 관점과 맥락이 통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50대 이상이 되면 다음 세대를 위해 해고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어야 하고, 60대가 되면 남들이 안 하는 더럽고 힘든 일만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개인에게 너무 가혹한 요구일 것이다. 사회구조적인 실업의 문제를 개인의 욕구억제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우회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sup>38)</sup>

37) 남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에 따르면, 성인후기의 발달 과제는 젊음과 늙음 사이의 분열을 극복하고, 각 계절에 적절하게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취하는 것으로, 그의 과제는 성인 후기에 적절한 새로운 형태로 자신의 젊음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38) 본 고의 함의는 구체적 정책적 대안의 제시라기보다는 대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은 여기에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어느 누구나 용이하게 접근 가능한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과 제도적 시스템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고령 근로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정책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먼저 사회적으로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장려하고 보호하며 또한 재고용을 촉진하는 법적·제도적 보완 및 지원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특히 모집·채용·해고 시 고령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고용보험 적용대상의 연령대를 상향 조정하며, 또한 고령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신규고용 장려금의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것 등이 그 일례가 될 것이다(재정경제부, 2003). 셋째, 각 조직에서 정년 연령의 연장을 사회적 분위기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노사합의로 호봉승급상한제나, 일정 연령 도달 시 임금인상을 제한하는 등의 임금피크제의 개발과 적용의 확산을 이러한 사회적 요구의 반영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 분석에 따르면 생산성 향상이라는 미명으로 진행되는 장년 및 고령인력의 감축이 생산성 증가로 연결되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최희

그동안 노인은 의존층이라는 생각으로 이들을 부담층이라는 스티그마를 부과하고, 이를 상식처럼 여겨왔다.<sup>39)</sup> 하지만 이들이 부담이라는 의존층이라는 인식은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연소노인 대부분은 건강하고 일을 계속 하고 싶어했기 때문이다. ‘노인’의 존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 연령에 기초한 ‘정직된’ 사회구조가 우리 사회의 사회구조적 한계와 노인 소외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박탈하면서, 이들에게 부담스런 존재라는 오명을 씌우는 것은, 어찌 보면 사회의 책임을 인구학적 통계에 그 문제로 덮어씌우려는 억지일 수 있다. 이러한 연령차별적 사고로는 고령사회에서 지속적인 사회발전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또한 다품종 소량생산이 요구되는 사회에서 끊임없는 자기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연령분리적·연령차별적 사회구성원리는 극복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노인은 무조건 ‘비생산적’이라고 간주해 버리는 선입관을 버린다면 가능할 것이다. 노인은 연령제한 또는 생물학적 노화에 의해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된 존재이다. 이처럼 노인은 경제적으로 배제된 집단일 뿐만 아니라,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잔여주의 복지정책으로 인해 사회권이 제한된 사회적 배제집단이기도 하다(송영민, 2003: 445). 따라서 앞으로의 노인복지는 연대기적 연령기준에 의한 차별을 벗어나 노인의 개별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sup>40)</sup>

이와 관련하여 본 고에서는 학문적 측면의 두 가지 제언을 하면서, 논의를 마무리하려 한다. 첫째는, 노년기에 대한 재개념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실제로도 최고령 은퇴국가임에도 불구하고,<sup>41)</sup> 조기퇴직이 강제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퇴직 이후의 긴 시간을 단순히 기존의 노년기의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전의 사회에서 은퇴는 노동시장에서의 완전한 이탈행위로 이해되었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은퇴는 다양한 형태로 변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 건강하고 사회적 활동이 가능한 이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노년기로서의 적응이라는 것은, 시대적 변화와 이들의 욕구와 부합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노년학의 노년기의 개념에 대한 재개념화가 필요하다.<sup>42)</sup>

선, 2004). 오히려 지금처럼 빨라지는 정년의 분위기는 사회 전체에 경험적 지혜의 축적구조를 제한하게 된다.

- 39) 인구구성을 14세까지는 유년인구로, 15-64세를 생산가능인구로, 65세 이상 인구를 노년인구로 구분하고 생산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유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를 계산하는 현재 모든 통계자료의 개념은 이러한 연령분리적인 사회의 모습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 40) 일정한 연대기적 연령을 기준으로 한 은퇴정책 역시 노인 일반을 노쇠와 관련된 노년 개인의 노동능력 차이를 간과함으로써 노동능력과 욕구가 있는 노인을 노동시장에서 차별하는 것이다. 역으로 사회권 보장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강조되는 노인의 노동권 역시 쇠약한 노인의 노동능력과 노동욕구를 간과한 것이다. 또한 경제생활의 주체가 되기 위한 노인의 노동이 건물관리원이나 청소원 같은 주변적이고 저임금의 일자리에 한정된다고 할 때, 노동권 자체의 확보가 아니라 어떠한 성격의 노동권인가에 대한 성찰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가 있을 때, 노인의 노동권은 복지권에 대립되는 의미가 아니라 복지의 한 범주로서 자리 잡을 것이다(송영민, 2003: 445).
- 41) OECD 국가의 은퇴연령을 비교한 장지연·호정화(2002: 15)에 따르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본 우리나라 은퇴연령의 수준은 높은 편이다. OECD 국가의 은퇴연령은 모두 1970년대를 거치며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1998년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최고 연령 은퇴국가로 분류될 수 있다.
- 42) 이러한 변화의 양상은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외국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부정적 의미의 노인이라는 말 대신에 숙인(熟人)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특히 50-60대를 실년(實年)이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시니어 시티즌(senior citizen: 선배시민), 골든 에이지(golden age)와

둘째는 신노년학(new gerontology)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신노년학이 기존의 노년의 상에 반대하여 긍정적인 노년의 상을 보이려는 의도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연소 노인들에게서 실제 그러한 모습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한 모습은 학자들의 논의나 혹은 대중매체의 이미지에서만 존재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현재 노인세대에게는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희망적인 이미지의 성급한 적용보다는 사회복지정책에서 배제된 사회적 약자로서의 지위와, 그 결과 발생하는 노후생활의 위험과 불안에 대한 관심이 강조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송영민, 2003: 416).

본 논문에서는 연소노인들의 ‘노동인’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노동인’적 측면에서 고령기를 이해하는 협소함을 벗어나, 여유로운 노년의 삶을 전제로 한 ‘여가인’으로서의 고령기를 이해하는 시각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박재환, 2004: 359). 그러나 문제는 현재 연소노인과 청장년이 이해하는 여가에 대한 인식의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의 차이는 연소노인의 생활적 측면의 문제해결 출발에 큰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지금의 현 연소노인 세대를 위한 여가대책이 단순히 즐기는 생활 위주로 진행될 때, 이들이 향유하고자 하는 이전부터 계속해온 일 중심 생활과는 괴리를 가져다줄 것이기 때문이다. 노인의 관점은 서비스 기획 및 제공에서 항상 중심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때 노인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은 삶 속에 녹아드는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이가옥 외, 2004: 21). 본 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노인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서 불구하고 노인들을 이해하는 데 주요한 통찰을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철희·김미옥. 2003. "한국사회복지학 연구방법론에 대한 분석과 고찰: 질적연구방법의 유용성 제고를 위한 논의". 『한국사회복지학』 55(11): 55-81.
- 권문일. 1996. "고령자의 퇴직 및 퇴직후 근로형태 결정요인". 『사회복지연구』 8: 41-67.
- 김경신. 1983. "인성특질에 따른 노년기의 적응유형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21(4): 117-129.
- 김덕성. 1987. "정년퇴직시기에 따른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상태변화에 대한 비교분석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동일. 2002. "100살까지 살게 될 당신께: 21세기 장수사회와 한국인의 대응". 『노년의 미학』. 가족아카데미아 pp 12-46.
- 김미선 외. 1990. "정년퇴직에 따른 중년남성의 우울과 불안에 대한 연구". 『이화간호학회지』 23: 60-76.
- 김애련·한내창. 1997. "노인의 여가활동 유형과 여가활동이 생애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6): 275-288.

같이 보다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노인이라는 말에 있는 어두운 이미지를 피하고 새로운 세대의 연령층이 다시 시작한다는 적극적 의미에서의 ‘제3세대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영국의 경우 1981년부터 제3연령대학(University of the third Age)운동을 통해 새로운 노년세대의 원형이 되는 퇴직자들의 퇴직 후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즉 교직원과 학생 간 구분 없이 이전의 직업경험을 살려서 자발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며,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배려하고 있다(Laslett, 1966 성미애·옥선화, 2002 재인용: 17).



- 김애순 역. 2003. 남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 D. J. Levinson. 1978. *The Seasons of a Man's Life*.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 2000. "은퇴와 노년기 일의 의미". 『노인취업의 현황과 과제』. 노인복지정책연구총서 17: 4-30.
- 김애순·윤진. 1995. "은퇴 이후의 사회·심리적 영향: 은퇴는 위기인가?". 『한국노년학』 15(1): 141-158.
- 김정현. 1995. "가족지지가 남자노인의 은퇴스트레스와 은퇴 후 적응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상위직종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향은. 1991. "정년퇴직을 앞둔 중년남성의 심리적 불안".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숙. 1983. "노인의 사회적 은퇴와 적응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경숙. 2000. "노동시장의 노령차별구조와 고연령층의 취업생활". 『노동경제논집』 23: 241-263.
- . 2002. "노동시장의 고령화와 업종 직종에서의 연령분리현상". 『노동정책연구』 2(2): 69-87.
- . 2003. "55세 이상 고령자의 노동시장 이탈과정: 은퇴의 유형화에 대한 함의". 『노동정책연구』 3(1): 103-140.
- 박재홍. 1992. "한국세대의 세대문제: 질적 접근". 『한국사회학』 92년 사회학대회: 33-39.
- . 1999. "기성세대의 생애사와 세대차이 인지에 관한 연구: 질적 접근". 『한국사회학』 33(가을): 257-296.
- . 2003. "세대개념에 관한 연구: 코호트적 시각에서". 『한국사회학』 37(3): 1-23.
- 박재환·일상성일상생활연구회. 2004. 『현대 한국사회의 일상문화코드』. 한울아카데미.
- 백근영. 1994. "은퇴 남자노인의 성격적응특성에 따른 노후적응도".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병숙. 1989. "노후적응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권 2호.
- 성미애. 1999. "남성퇴직자의 생활태도 유형화 및 유형별 퇴직후 적응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성미애·옥선화. 2002. "남성 퇴직자의 생활태도 유형화 및 유형별 퇴직 후 적응도". 『대한가정학회지』 40(1): 1-22.
- 송영민. 2003. "노인복지정책과 담론". 『통합과 배제의 사회정책과 담론』. 서울: 함께읽는 책.
- 심은경. 1983. "은퇴한 노인의 가계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기상. 1997. 『실버산업을 잡아라』. 글사랑.
- 오경숙·서병숙. 1990. "활동을 중심으로 한 노후적응". 『한국노년학』 10(1): 125-145.
- 유태균 역. 2001. 『사회복지 질적연구방법론』. Padgett, D. K.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Challenges and Rewards*. 서울: 나눔출판.
- 이가옥·우국희·최성재. 2004. "노인독립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한국사회복지학』 56(1): 5-22.
- 이승아. 1998. "중년기 직장남성의 퇴직에 대한 태도와 퇴직 후 생활계획".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희. 1984. "정년 퇴임 후의 적응문제와 그 대책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경섭. 1995. "조기퇴직자의 가족적 지원과 대책방안: 토론". 『한국노년학』 15(1): 138-140.
- . 2000. "가족이념의 우발적 다원성: 압축적 근대성과 한국가족". 『한국사회학회』. 2000년 후기 사회학대회 발표문 요약집. pp 81-84.
- 장지연·호정화. 2002. "취업자 평균 은퇴연령의 변화와 인구특성별 차이". 『노동정책연구』 2(2): 1-21.
- 재정경제부. 2003. 『인구고령화의 현황 및 정책대응방향』.
- 지연경·조병은. 1991. "내외통제성 및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과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29(2): 217-240.
- 최성재·장인협. 2002. 『노인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최성재. 1989. "퇴직 예정자의 퇴직에 대한 태도 및 퇴직 후 생활전망의 인식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 연구』 1: 47-65.
- 최순남. 2000. 『현대노인복지론』. 오산: 한신대학교 출판부.
- 최종혁. 2002. 『사회복지실천프로그램의 질적 평가 방법론』. 서울: 청목출판사.
- 최혜경·공유경 역. 2002. 성공적 노화. Rowe, John and Robert Louis Kahn. Successful Aging. 서울: 학지사.
- 최희선. 2004. 『고령산업인력과 생산성: 제조업부문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 태원경. 1995. "중등교원의 선호하는 은퇴시기 및 은퇴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경혜. 2004. "노년학연구의 방법론: 생애사 연구를 통한 노년기 삶의 이해". 2004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한희자·강은실. 2001. "은퇴자들의 은퇴 후 삶의 상대 변화". 『정신간호학회지』 10(2): 203-219.
- 허정무. 1993. "교원의 정년퇴직 준비과정과 퇴직 후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호정화. 1998. "교사의 일과 은퇴에 대한 태도 연구: 성별비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tchley, R. 1971. "Retirement and leisure participation: Continuity or Crisis?". *The Gerontologist* 11(1): 13-17.
- Bosse, Raymond. 1993. "Changing in Social Support After Retirement: Longitudinal After From the Normative Aging Study". *Journal of Gerontology* 48(4): 229-236.
- Davidson, W. R. and K. R. Kunze. 1965. "Psychological, Social, and Economic Meanings of Work in Modern Society; Their Effects on the Worker Facing Retirement". *The Gerontologist* 5(2): 129-133.
- Ekerdt, David J. 2004. "Born to Retire: The Forshortened Life Course". *The Gerontologist* 44(1): 3-9.
- Fillenbaum, G. G. 1971. "On the Relation between attitude to work and attitude to retirement". *Journal of Gerontology* 26(30): 244-248.
- Gall, Terry L., David R. Evans. and John Howard. 1997. "The Retirement Adjustment Process: Changes in the Well-being of Male Across Time". *The Journal of Gerontology* 52(3): 110-117.
- Gerge, L. and G. L. Maddox. 1977. "Subjective Adaption to Loss of the Work Role;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Gerontology* 32(4): 456-462.
- Kalish, R. A. 1975. *Late Adulthood: Perspective on Human Development*. Berkely: Cole Publishing Co.
- Kim, jungmeen E. and Phyllis Moen. 2002. "Retirement Transition, Gender, and Psychological well-bing: a life course, ecological model". *The Journal of Gerontology* 1(1): 212-222.
- Lincoln and Guba. 1985.
- Maddox, G. L. 1970. "Adaption to Retirement". *The Gerontologist* 10(1): 14-18.
- Minichiello, V. et al. 2000. "Perceptions and consequences of ageism: Views of older people". *Aging and Society* 20: 253-278.

- Neugarten, B. 1974. "Age groups in American society and the rise of young-old".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415: 187-198.
- Nuttman-Shwartz, Orit. 2004. "Like a high Wave: Adjustment to Retirement". *The Gerontologist* 44(2): 229-236.
- Patton, Q. 1990.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Sage Publications.
- Savishinsky, Joal. 2001. "Image of Retirement: Finding the Purpose and the Passion". *Generation 1*: 52-56.
- Shanas, E. 1972. "Adjustment to Retirement: Substitution or Accommodation?". In F. M. Carp(ed). *Retirement*. NY: Behavioral Publications.
- Simpson, I. H., K. W. Back. and J. C. McKinney. 1966. "Work and Retirement". In I. H. Simpson and J. C. McKinney(eds). *Social aspects of aging*.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Wood, V. and Bultena. 1969. "The American Retirement Community; Bane or Blessing?". *Journal of Gerontology* 24(2): 209-217.

## The Study on the Adaptation Process of Young Old Men and the Perspective after Their Retirement

Rhee, Ka-Oak  
(SungKongHoe University)

Lee, Ji-Young  
(SungKongHo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relatively young old men become old people after retirement and how they view their forthcoming old age. We interviewed the aspects of lives of the 10 relatively young old men to attain the purpose. According to the interviews, it was difficult to get a job after retirement in our society even though they wanted to do. This paper focuses on how the process of lowering their expectation to work happened, how they viewed their forthcoming old age during the process. One of the results showed that whenever they had failed to attain a job, they had been asked to lower their expectation of work. It seemed that their expectation to work became weak. But the process of exclusion of social role took away not only their expectation to work but also their plan for the future. As a result, the gap between an individual who wanted to be younger and the society which made them older made to decrease the degree of satisfaction.

Key words: young old male, retirement, adaptation process

[접수일 2004. 11. 19. 게재확정일 2005. 1. 3.]